

광주FC, 구단 최다 무패 행진 '새 역사'



광주FC 선수들이 지난 2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후 FA컵에서 부상을 당한 팀 동료 여봉훈(등 번호 14번)의 빠른 복귀를 기원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서울 이랜드 꺾고 12게임 연속 무패 신기록

김정환, 윌리안, 여름 득점포 3대1 완승
부천 꺾은 2위 부산과 승점 2점차 선두



리그 유일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광주는 지난 2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이랜드와 하나원큐 K리그2 2019 12라운드 홈 경기에서 김정환과 윌리안, 여름의 득점포를 앞세워 3대1 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개막전 이후 리그 무패 행진을 12경기(7승 5무)로 늘렸고, 승점 26점과 함께 단독 선두를 굳게 지켰다.

12경기 무패는 2010년 창단한 광주의 최다 경기 연속 무패 신기록이다. 지난해 11경기 연속 무패(3승 8무)가 종전 기록이었다.

이날 부천FC를 3대1로 꺾은 2위 부산(7승 3무 2패·승점 24점)과의 승점차는 2점차다.

‘맨데이 나이트 풋볼’로 치러진 이날 경기에서 광주와 서울 이랜드는

끈끈한 수비로 초반부터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다. 전반 18분 윌리안의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 공방전을 펼쳤다.

전반 중반부터 서울 이랜드의 공세가 매서웠다. 전반 21분 쿠틀뉴의 터닝 슈팅, 22분 김민규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은 광주 골키퍼 윤평국 선방에 막혔다.

이랜드의 공세에 주춤하던 광주는 전반 29분 김정환의 발끝에서 터진 골을 시종 첫 골로 평평한 균형을 무너뜨렸다.

이윽고 패널티 지역 왼쪽에서 윌리안 크로스를 김정환이 문전으로 쇄도하면서 원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기세가 오른 광주는 10분 뒤 추가골을 터뜨렸다.

전반 39분 이윽고 패널티 지역

왼쪽을 파고들어 내준 공을 윌리안이 오른발 인사이드 킥으로 골문 구석에 꽂아 넣으며 2대0으로 달아났다.

올해 광주 유니폼을 입은 윌리안이 7경기 만에 기록한 데뷔골이었다. 이윽고 이날 2도움으로 승리에 일조했다.

광주는 후반전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 했다. 김주공이 후반 3분, 18분 연속으로 좋은 기회를 맞이했지만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광주는 후반 29분 이랜드의 쿠틀뉴에게 득점을 허용했지만 곧바로 추가골을 터트리며 승리에 해기를 박았다.

후반 34분 여름이 패널티 아크 안에서 얻은 프리킥을 오른발로 차 넣어 자신의 시즌 3호골과 3대1 승리를 완성했다. /박희중 기자



지난 8일 열린 애크랜드와의 경기에서 2천170일 만에 완봉승을 거둔 류현진이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USA TODAY Sports=연합뉴스

‘위풍당당’ 류현진

ESPN·톰 탕고 ‘사이영상’ 예측 포인트서 모두 1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31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으로 승승장구하는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투수 최고의 영예인 사이영상 예측 순위에서 1위를 질주했다.

류현진은 20일 현재 미국 스포츠 전문 케이블채널 ESPN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이영상 예측 순위에서 74.9점을 획득해 내셔널리그 1위를 질주했다. 2위는 다저스의 마무리 투수 켄리 안선(61.6점)으로 류현진보다 크게 뒤처진다.

성적에 걸맞게 ESPN 사이영상 예측에서도 선두를 지켰다.

ESPN 사이영상 예측은 야구통계의 선구자인 빌 제임스와 ESPN 칼럼니스트 롭 네이아가 함께 만든 공식으로 순위를 매긴다.

투구이닝, 자책점, 탈삼진, 승패 수 등을 복잡한 공식에 대입하고, 소속팀이 지구 1위를 달리면 승리 보너스 12점을 추가로 얻는다.

사이영상이 사실상 선발 투수의 전유물이라고 볼 때 안선을 제외하고 루이스 카스티요(신시내티·55.6점), 잭 그레인키(애리조나·55.1점), 잭 데이비스(밀워키·53.3점) 등을 현재 류현진의 경

쟁자로 볼 수 있다.

류현진은 또 다른 사이영상 예측 트래커인 톰 탕고 사이영상 포인트에서도 내셔널리그 1위에 올랐다.

야구 통계 전문가 톰 탕고가 고안한 사이영상 포인트 계산법은 ESPN 공식보다 단순하다.

먼저 투구 이닝을 2로 나눈 수치에서 자책점을 뺀다. 또 탈삼진을 10으로 나눈 수치와 승수 등 세 항목을 더해 점수를 계산한다.

류현진은 59%이닝을 던지고 자책점 10점을 기록했다. 삼진은 59개를 낚았다. 공식에 대입하면 류현진은 (59%이닝/2-10)+(59/10)+6으로 31.6점을 얻는다.

이는 카스티요(30.4점), 데이비스(25.9점), 그레인키(24.5점)보다도 높다.

류현진은 야구통계 전문가 빌 제임스의 또 다른 통계인 시즌 점수에서도 내셔널리그 1위에 올랐다.

제임스는 승패, 탈삼진과 볼넷에 가중치를 각각 달리 해 더하고 뺀 뒤 자책점을 가미해 ‘시즌 스코어’란 항목을 만들었다.

류현진은 시즌 점수에서도 109.7점을 획득해 카스티요(97.8점)와 그레인키(95.3점)를 눌렀다. /연합뉴스

KIA, 여성 팬心 겨냥 ‘레이디스 데이’ 연다

25일 kt戰 선수단 ‘핑크 유니폼’ 착용...다양한 이벤트 마련
26일엔 가족팬 위한 ‘패밀리 데이’...경기전 그라운드 개방



프로 야구 KIA타이거즈가 여성팬을 대상으로 한 ‘레이디스 데이’를 개최한다.

KIA는 오는 2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t위즈와의 경기를 ‘레이디스 데이’로 정하고, 여성팬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한다.

우선 선수들이 이날 경기에 핑크색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다.

‘레이디스 데이’를 위해 새로 디자인된 이날 유니폼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내 타이거즈숍과 온라인을(tigersshop.kr)에서 판매된다.

KIA는 또 4번, 5번 게이트에서 여

성팬(선착순 300명)에게 ‘핑크 호걸이 파우치’를 나눠줄 예정이다.

여성팬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라운드 이벤트도 준비된다.

투구 다트판의 숫자를 맞추는 ‘제구 퀘’ 선발대회를 열어, 1·2위를 차지한 팬에게 시구·시타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 이벤트 참가자들에게선 그라운드 선수단 하이파이브, 포토타임(5명)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26일에는 ‘KIA 패밀리데이’를 개최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KIA는 이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팬에게 피크닉 돗자리 600개(4,5,7번 게이트 입장객 한정)를 나눠줄 계획이다.

경기 전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캐치볼 할 수 있게 외야 그라운드를 개방하고, 팬 사인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레이디스데이와 패밀리데이 이벤트는 KIA타이거즈 카카오톡플러스친구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박희중 기자



이강인, FIFA 선정 ‘U-20 월드컵에서 주목할 10인’

한국 U-20 축구대표팀의 이강인(18·발렌시아)이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정한 2019 FIFA U-20 월드컵에서 주목할 10명의 선수에 포함됐다.

FIFA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폴란드 U-20 월드컵에서 주목해야 할 10명의 선수’를 발표했다.

오는 24일 새벽 폴란드에서 개막하는 2019 U-20 월드컵에는 한국을 비롯해 2

4개 팀이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F조에 포함돼 1983년 대회에서 거둔 ‘4강 기록’을 36년 만에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FIFA는 이번 대회에서 ‘스타 탄생’이 기대되는 10명의 선수를 조명하면서 정정용호의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을 포함한 눈길을 끈다.

FIFA는 “발렌시아는 인종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을 2011년부터 일찌감치 유소년 팀에 영입했다”라며 “그는 마침내 2019년 1월 시니어 무대에 데뷔했고, 2019년 3월에는 국가대표에도 처음 소집됐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F조에서 다투는 아르헨티나

의 수비수 네우엔 페레스(18·아르헨티노스 후니오르스)도 10명의 선수에 포함됐다.

FIFA는 페레스를 설명하면서 “아르헨티나가 남미예선에서 준우승하는 동안 대표팀의 주장이자 중앙 수비수로서 큰 역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의 눈길을 끌어 영입됐다”고 칭찬했다.

이밖에 아시아권에서는 이강인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의 투르키 알 암마르(20·알 사바)도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손흥민, 토트넘 ‘No1’

英 매체, 시즌 평점 8...“올 시즌 최고 수훈 선수”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영국 매체가 매긴 시즌 평점에서 토트넘 선수 중 1위를 차지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2018-2019 시즌 토트넘 선수단과 감독에 평점을 매기고 “손흥민과 무사 시소코가 이번 시즌 가장 빛났다”고 21일 전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이 올해 기억에 남을만한 시즌을 보냈다고 평가했다.

“비록 2, 3월 부진으로 리그 우승 경쟁에서는 밀려났지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토트넘이 거둔 성과는 대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흥민에 대해서는 “이번 시즌 팀 내 수훈 선수”라며 “주전 공격수 해리 케인의 부상 이후 성장한 모습을 보여 20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대표팀 소속으로 두 개의 국제대회를 치르면서도 기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손흥민에게 시즌 평점 8점을 부여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정규리그 12골, FA컵 1골, 리그컵 3골, UEFA 챔피언스리그 4골을 합쳐 20골을 터뜨렸다.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이 특히 두드러졌다.

강호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를 상대로 펼친 8강에서 손흥민은 1, 2차전 합계 3골을 몰아쳐 팀의 4강 진출에 앞장섰다.

도르트문트(독일)와의 16강전에서도 1골을 넣은 그는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개인 통산 12골 고지를 밟아 막심 샤츠키흐(우즈베키스탄·11골)를 제치고 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 골 기록을 세웠다.

인디펜던트의 평가에서 토트넘 선수 중 손흥민보다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는 없었다. /연합뉴스

